

일주문

서초구시암연 회장 추대
 춘광 서울 천태종 관문사 부주지는 11월 23일 우면동 대성사에서 열린 서초구 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 4대 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
 진만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은 11월 21일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여수 흥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56사단 백운사 수계법회
 법현 서울 천중사 부주지는 17일 오전 11시 고양시 지족동 56사단 백운사에서 장교와 장교부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갖는다.

충남도 예술문화상 수상
 진홍수 한국고건축박물관장(62)은 11월 24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심대경 충남도지사로부터 제4회 충남도 문화상 예술부문을 수상했다.

전북불교대 동문 작품전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녹지원에서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및 동문 작품전을 개최한다. (063)226-7878

다보법회 12월 초청법문
 권기중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703-0108

'공직자의 자세' 강연
 김중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일 전남 영암군청 대강당에서 군내 공무원 300명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도서 4백여권 동방대 기증
 이철현 동방불교대 교수는 11월 23일 <경제학원론>, <상법개론> 등 사회과학 서적 및 소설 등 10여종의 도서 4백여권을 동방불교대에 기증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새 회장
 조영규 (주)우림엔지니어링 관리차장은 11월 14일 열린 대불청 서울지구 대의원 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사
 △회장: 심용
 △동국불교미술인회: 식 스승석부회
 장: 박현수 △부회장: 광동해, 김의식 △총무: 이재순 △사무: 이철승 △감사: 전연호



대한불교 천태종 영통사서 첫 기념법회

덕수 총무부장, 도재 재무부장, 영통사복원위원회 김세민위원장은 경천 교무국장, 세운 의전국장, 송재 사회국장, 김유혁 중앙 신도회장, 최용준·김상현·김동원 동국대 교수 등 천태종 방북단은 11월 23일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지인 개성 영통사지에서 남한 불교계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대각국사 부도탑 앞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덕수스님과 복환의 이경숙 기자



진명스님·진영조·박현진씨 수상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불교를 생각한다'를 제작한 대구 불교방송의 박현진PD가 수상했다. 일반TV부문 대상에는 대구MBC의 '다라니경의 진실(2부작)'(연출 이원욱)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MBC 본사가 제작한 '콘스님, 승산'(연출 김영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간방인 불국토가 주최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와 보리방송문화상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5일 부산 코도모호텔에서 열렸다. 김주일 기자

불교기자 대상 이재형 기자

제4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법보신문 이재형 기자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정성운)는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기획기사 '불교학·불교학자'를 쓴 법보신문 이재형 기사를, 기획부문상에는 '관향로 사찰과 포교'를 쓴 본사의 김원우·김두식 기자, 취재부문상에는 '달라이라마 관련' 보도를 한 법보신문 남배현 기자, 사진부문상에는 기획록 '우리 스님'의 불교신문 김명주 기사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5일 오후 6시30분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와 함께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백만원과 상패,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한편 올 기자상에는 기획부문 8편, 취재부문 4편, 사진부문 1편 등 총 13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김주일 기자

성운스님 월남장 특별상

사회복지·종교교화 공로인정

은평노인복지관 관장 성운스님이 11월 25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 주최 제24회 '원로찬화(元老讚賞) 월남장'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사진)했다. '원로찬화 월남장'은 월남 이상재 선생의 뜻을 기려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원로들을 선정, 수상하는 상이다. 성운스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아끼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했으며, 종교교화 및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운스님은 "아직도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며 "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려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이웃에 보시행 펴며 후배양성"

은퇴하는 불자 레슬링 국가대표 심권호

"나에게 베풀어준 후배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보시행 정신을 실천하며 후배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힘쓰겠습니다." 한국레슬링계의 거인 심권호선수가 은퇴한다. 28 이상 올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28세의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자신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후배 하태연(24·삼성생명)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지인들 중에는 이번 은퇴가 평소 불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의 조건에는 이타행에서 비롯된 용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그라운드(아시아 선수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을 모두 제패하는 것)를 그레코로만형 48kg급과 54kg급, 두 체급에 걸쳐 두 번씩이나 이룬 심권호의 쾌거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상금을 보내는 등 보시행을 결쳐온 심 선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한 뒤 후배 양성을 위한 지도자 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권호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이 끝나고 대표선수 기간의 승리와 좌절 등을 겪은 자서전 <세계를 돌린 작은 청년(디자인 소호 펴) 출판기념회를 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연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7년째 신부전증...수술비 없어

호소 — 한 불자가 7년째 있으나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박소영씨(31·서울 영등포 당산동)가 신부전증 발병 사실을 안 것은 지난 94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앓아온 당뇨로 지체대로 지쳐있는 박씨와 박씨 가족에게는 형벌이나 다름없는 충격이었다. 박씨는 얼마전 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수술비가 없어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현재는 입원비가 없어 집에서 복막투석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도움주실분 (02)734-8050 한명우 기자



인권법당 기금마련 고승서화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일·한성범)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27일~12월6일 서울 동전골거리에서 '인권법당 기금마련을 위한 서화·도자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석주스님, 회광스님, 화엄스님 등 원로스님의 서화, 도자기 등 80여점이 전시중이다. 11월27일 전시회 첫날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육해공군 군승단과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정현,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장국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불교진흥회는 전통한 법사와 현대불교신문사 등에 군포교원력상을 수여했다.



돌풍연대 호국 석림사 낙성법회

무적태극부대 돌풍연대 호국 석림사는 11월 29일 불상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불공사 법주 지경 스님, 동두천사암연합회 회장 해림스님을 비롯해 이순호·유명선·이종인 군종장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오재덕



불음합창단 15돌 기념 자선공연

불음합창단은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창단 15주년 기념 자선공연 '불교 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예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님에게 향하여' 등 25곡의 찬불가가 연주됐다. 또 바이올린 연주와 수화공연도 함께 열렸다.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운
 명에 대하여 대처(對處)한다면 후회(後悔)의 액(厄)을 면(免)하
 고 전파(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형을 거쳐 완성
 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막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
 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
 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피
 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
 성진 선생의 '命理玉璽'을 읽지 않
 고 어찌 강한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전국 서점 판매중! 정선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32,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허서 명리진경 신국판/책서 30,000원
2. 21C 최신 우리말 대운 관세력 4x6배판/책서 30,000원
3. 새이름의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책서 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양장본 25,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신일 권호일 공저/장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승섭 지음/장 25,000원
8. 고전 풍수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28,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양장본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양장본 15,000원
11. 신부전비결 신국판/책서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장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지음 /장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양장본 권지영 지음 /장 15,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명기론)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術)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경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진다.
2. 정지(陰宅)와 묘지(陰宅)는 풍운(吉地)과 나뉜다 (凶地) 땅기운이 혼이든다.
3. 나쁜 정(陰宅)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동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32,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질실이 당신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신원을 쳐르고
 주먹을 사고 주먹을 사고
 팔리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겠습니까?

45S/양장본 40,000원

達磨大師의 달마대사

四柱秘傳

사주비전

종교든 문학이든
 사상에 따라 이해되고 편중 되지만
 역학(天文學)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이 없어 만물에 두루 평등하다.

▷ 부 록 :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著者 達磨

구입 문의
 011-301-4949 051-301-4949
 051-328-5551 051-321-4804

人生에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고
 오복은 양서의 비전을 보고
 훌륭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